

에

장소·도착점·시간 — 위치와 때

무엇이 있는 장소, 향해 가는 장소, 일이 일어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. 모든 명사에 같은 형태로 붙지만, 예를 써야 할 때와 에서를 써야 할 때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용법	함께 쓰는 동사	예
정지된 위치	있다, 없다, 살다	집에 있어요
도착점	가다, 오다, 다니다, 도착하다	학교에 가요
시점	모든 동사	세 시에 만나요
단위당	가격, 비율	한 개에 천 원이에요
쓰지 않는 경우	오늘, 어제, 내일, 지금, 언제	오늘 가요 — 오늘에 (×)
사람에는	대신 에게 / 한테	친구한테 왔어요 — 친구에 (×)

■ 언제 쓰나요

에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. 첫째, 무엇이 있는 위치를 나타냅니다(있다, 없다, 살다와 함께): 가방이 책상 위에 있어요. 둘째, 향해 가는 곳을 나타냅니다(가다, 오다, 다니다, 도착하다와 함께): 학교에 가요. 셋째, 때: 세 시에 만나요.

를 나타냅니다. 세 용법의 공통점은 그 명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. 어떤 장소에서 실제로 동작이 일어나면 한국어는 에서로 바꿉니다. 학교에 있어요(학교에 있다)와 학교에서 공부해요(학교에서 공부한다)를 비교해 보십시오. 에 관련 오류는 대부분 이 구별에서 생깁니다.

지금 꼭 외워 둘 제한이 두 가지 있습니다. 오늘, 어제, 내일, 지금, 언제, 매일처럼 이미 때를 나타내는 시간어에는 예를 붙이지 않습니다. 또 사람에게는 예를 쓰지 않고 에게나 한테를 씁니다.

■ 예문

- 1 지금 집에 있어요.
- 2 내일 서울에 가요.
- 3 일곱 시에 일어나요.
- 4 책상 위에 놓았어요.
- 5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?
- 6 주말에 뭐 해요?

■ 비교

에서 에는 장소를 위치나 도착점으로 나타내고, 에서는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나타냅니다. ‘거기서 무엇을 하는가?’라고 물어서 답이 나오면 에서를 씁니다. 회사에 있어요. (회사에 있다) / 회사에서 일해요. (회사에서 일한다)
에게 / 한테 에는 사람이나 동물에 붙지 않습니다. 받는 사람이 사람일 때 말에서는 한테, 글에서는 에게, 높이는 대상에게는 께를 씁니다. 에는 장소, 기관, 식물에 씁니다. 친구한테 보냈어요. (친구에게 보냈다) / 회사에 보냈어요. (회사로 보냈다)

(으)로 둘 다 도착점을 나타낼 수 있지만, 에는 도착하는 지점을, (으)로는 향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. 가다와 함께라면 둘 다 가능하며, (으)로는 ‘~쪽으로 향하다’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. 학교에 가요. (학교에 간다) / 학교로 가요. (학교 쪽으로 간다)

■ 주의

- ✗ 도서관에 공부해요.
○ 도서관에서 공부해요.
공부는 동작이므로 장소에 에서를 씁니다. 에는 있다, 없다, 살다와 도착점에만 쓰십시오.
- ✗ 오늘에 시간이 없어요.
○ 오늘 시간이 없어요.
오늘, 어제, 내일, 지금, 매일, 언제는 이미 시간을 나타내므로 조사를 붙이지 않습니다. 세 시에, 월요일에는 예를 붙입니다.
- ✗ 친구에 선물을 줬어요.
○ 친구한테 선물을 줬어요.
사람과 동물에는 에게나 한테를 씁니다. 에는 장소와 기관에 씁니다.